

종계도입중단은 시기적절한 조치



설 동 섭
〈축산시험장 육종
과장·농박〉

외국종계의 도입이 중단된 것은 1973년 11월 29일자로 농수산부에서 결정하므로 해서 발효된 것이다. 회고컨대 1964년 이때 외국종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꼭 10년만에 중단한 셈이 된다. 종계 도입을 중단해야 한

다는 소리는 도입이 시작된 직후부터 줄곧 끈질기게 국산계의 종계를 가를 위시해서 육종학자들이 주장해 오던 것이지만 한번 외래상품에 맞들인 국민들이 좀처럼 국산품을 신용하지 않는 것처럼 종계장은 하나의 상업수단으로서 외국종계의 상표명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국산계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싫어하는 경향이 생겨서 말로는 가장 애국하는척 국산계를 빨리 육성하여 도입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도입제의 능력을 증가하는 국산계가 개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내세우면서 종계의 국산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여 왔기 때문에 종계의 국산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사실 외국종계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양계인 아닌 양계인까지도 종계업을 하는바람에 1971년도와 같은 한국 양계사상 최대 불황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면서 양계인들 간에 도입종계의 수입량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와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절해 보았지만

G.P.S. 업자들의 무질서한 P.S. 생산 때문에 양계경기는 사료파동과 아울러 여전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국산제도 국가기관에서는 축산시험장에서, 민간기업체에서는 한협가금육종주식회사가 개발하여 난중과 사료효율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뿐 거의 외국종계에 손색이 없는 산란종계가 생산되고 있어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감안하여 산란계에 한해서는 단호히 종계도입을 중단했고 육계에 한하여는 종계개량역사가 짧아서 원원종계의 확보수가 적어 1974년도 1년간에 한하여서만 10만수 범위내에서 P.S.를 도입하도록 허용하고 그 이후는 완전히 국산계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입되든 종계수입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으며 또한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몇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점으로서는 첫째 매년 종계 50만수 도입을 위하여 쓰는 30~70만불의 외화를 절약할수 있다. 이점을 흑자는 사료 도입에 쓰이는 연간 외화 4~5천만불에 비하여 1%도 못되는 적은 외화를 가지고 뭇이 대단하다고 절약 운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먼저 10년전에 종계를 시험적으로 도입해 보든 때의 외화액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불과 2~5천불에 불과하던 것이 10년후에는 100배로 늘어났다. 이것을 1,000불 소득, 100억불 수출이란 목표년도인 1981년도에까지 그대로 두면 적어도 3~5백만불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컨대 사료모 90%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병아리까지 의존한다는 것은 완전히 외국에서 가금생산물을 직접 사서 먹는 거와 다를것이 없다. 사료를 외국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농수산부는 11월 29일자로 1974년도 부로일러총계 114,000수 이외의 종계도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연간 30—70만불의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사료도 90%이상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병아리까지 의존할 수 없다.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나면 모르되 외국계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국산계를 두고 외국계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질서를 잡자면 그 과정에서 다소의 차질과 시행착오는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양계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종계 도입중단은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공급저인 미국의 곡물가격 조작으로 하루아침에 한국 축산은 도산 직전에 서게되지 않는가? 도입종계에 대한 가격 조작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화절약보다 양계경기의 독립성을 면 장래의 주안점으로 두고 사료의 국산화보다 손쉬운 국산계를 하루빨리 도입종계에 대체해서 양계경기의 조정을 우리 힘으로 해야 하겠다.

둘째로는 연간 4~5천만불씩 도입하는 사료를 그저 국산화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벌어오는 외화를 무한정히 쓰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곡류사료중 도입옥수수 대체용으로 국내산 보리와 고구마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옥수수 위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육종한 미국종계는 사료사정이 좋지않은 우리나라 사료로서는 충분한 능력을 낼수가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kg당 30원 내외였지만 이제는 2배가 넘는 65원대 이상으로 국내 옥수수값 kg당 58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잘 조절하면 보리와 고구마를 많이 장려 생산해서 대체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되면 자연히 사료의 질은 지금까지 도입옥수수, 어분 및 대두박에 의존하여 오던것과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이런 사료에 도입종계가 본래의 능력을 100% 발휘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런 사료조건에 알맞은 국산계를 개량보급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도입종계에서 매개되는 새로운 전염성질병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외국에서만 있던 질병이 한국으로 전파되는 경로는 비단 종계도입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가금 생산물, 사료등

에서도 물어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가장 많고 직접적인것은 종계로 들어오는 병아리 자체가 갖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닭에 없던 마력병, CRD, 뇌척수염 등의 무서운 전염성 질병들은 모두가 종계병아리로부터 전래되어 온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국산계보다 능력이 좋은 종계가 수입 되었다 해도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폐사되는 닭수는 적어도 30%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마력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실질적인 도입종계에 의한 가금물 증산은 담보상태 그대로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호주같은 나라에서는 미국닭이 자기나라 닭보다 10~20개 정도의 알을 더 잘 낳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외국에서 종계를 도입하지 않고 자기나라에 알맞는 닭을 개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미국닭을 도입함에 따라 들어오는 새로운 질병때문에 죽는 닭을 제산에 넣는다면 증산은 커녕 잘 못하면 호주양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호주는 지금도 뉴캐슬병같은 것은 완전히 없는 상태로 예방주사도 놓지 않는다. 그리고 호주닭은 지리적 여건때문에 옥수수보다 밀·보리가 주가되는 배합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미국닭이 그런 사료에 적응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도입종계의 수입을 중단하고 국산계로 대체하면 지금까지 자기종계장의 외국상표명 병아리를 팔기위한 비열하고 추잡하며 격렬한 경쟁도 어느정도 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산종계의 공급원이 축산시험장을 중심으로 한협과 몇

몇 뜻있는 종계가들이 개발한 종계가 보급되면 종계 상표명에 의한 선전경쟁보다도 진실로 건강하고 깨끗하여 능력이 좋은 병아리를 잘 부화해서 내려는 선의의 경쟁으로 종계사업의 전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도입종계가 1973년도에 G.P.S.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4년간은 월년을 시키면서 최대로 도입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팔 기간동안에는 다소의 무리와 잡음, 무질서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일이 질서를 잡자면 그 과정에서는 다소의 차질과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런 점을 우리 양계인 전체가 감수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다섯째, 국산종계가 보급되면 외국종계보다 훨씬 값싼 병아리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도입종계가 P.S.일 경우 수당 약 800원대화, 국내에 도입된 G.P.S.에서 생산된 P.S.도 500~600원선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협의 국산종계는 300~350원이다. 실용계 병아리도 외국계는 수당 150원 국산계는 80원선으로 약 절반으로 값이 싸지고 앞으로 1976년부터 축산시험장의 새로운 종계 G.P.S.를 분양할 때는 현재 한협에서 내고있는 가격보다 훨씬 싼값에 공급되리라는 예측을 하고있다.

여섯째, 국산종계로 도입종계를 완전히 대체할 경우 과거 1971년도와 같이 과잉 생산될 때 종계의 값이 싸기 때문에 종계 사육규모를 신속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해서 과잉생산에 의한 불황을 면할 수 있다. 도입종계는 도입원가가 대단히 높아서 G.P.S.의 경우 수당 1~2만원이 넘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P.S.를 생산 판매한다. 이런 현상은 P.S.단계서 실용계를 생산하는 것도 과잉상태로 생산 공급해서 결국 양계가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종계업자, 사료업자까지 다같이 망하는 사례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 도입종계의 중단조치가 얼마나 적절한 조치였나 하는 것을 새삼스러히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 도입종계의 수입중단이 가져오는 단점을 열거해서 그 해결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도입종계의 수입이 중단된 이후 사료사정이 극히 좋아져서 즉 옥수수수를 비롯한 각종 배합사료원료의 가격이 그전대로 환원된다면 사료

효율면에서 국산계가 도입계에 비하여 손해를 보지 않으나 하는 점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사료사정이 좋아졌다 하여도 국제적으로 외화회득면에서 사료의 대량도입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국내의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사료가격을 현재 우리 국민이 먹고있는 밀가루가격도 물가고 때문에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마당에 사료장사 마음대로 올려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값싼 국내사료자원을 개발해서 값비싼 외국 원료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료의 질이 옛날같이 개선되리라고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처지이고 보면 사료효율면에서 오히려 국산교잡종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도입종계는 국산계보다 능력이 낮기 때문에 국산계가 수지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표 1를 보면 국산계가 다소 난중이 평균

표 1. 도입계와 국산계의 능력 비교표 (1973)

품종 형질	국산계*	세이버스타크로 288**	도입계 평균**	비 고
산란수	221개	220	208	
난중	57.4kg	58.7	58.1	
성체생존율	85%	81.6	87	

* 국산계는 축시품종을 도 중축장에서 시판사료로 500일간 검증한 성적

** 수입계는 1973년도 대한 양계협회 탐 능력 검증소에서 NRC 표준에 맞춘 사양조건에서 검증한 성적

1gr 정도 적다고는 하나 작년도와 같이 사료의 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도 중축장에서 실시한 축시교잡종의 성적은 수입계 평균을 능가하고 수입계중에서 가장 능력 좋다는 세이버에 손색이 없는 성적을 보인 것은 국산계의 사료질의 변동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저력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는 도입계를 완전 중단하고 국산계로 대체할때 현재 주로 국산 우량종계를 생산하고 있는 한협에 독점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기허 20여년 이상을 국산계 개량을 위하여 사재(私財)를 막대히 희생한 장본인에 대한 격려를 하는뜻에서도 우선적으로 한협에서 개발된 우량국산계를 쓰고 축산시험장에서 개발된 종계를 부분적으로 희망하는 몇몇

G.P.S. 농장에 분양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도 국산계 개량을 촉진시키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넷째로는 일반 종계장이나 양계가들이 국산계에 대한 능력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 사육하기를 주저하는 점이다. 이것은 국산계 개량의 가장 큰 암적인 문제점인데 현재 국산계를 보급할 원원종계를 확대생산해서 실제 양계농가에 보급되었을 때 모두가 다 능력점정성적과 같이 과연 나오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점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1~7회배의 대한양계협회 닭 능력점정성적에서와 같이 국산계가 특정한 수입제품종에 비하여 2~5%정도 능력이 낮게 나온다 하였을 때 이 조그마한 차이때문에 국산계를 저바릴 것이냐하는 문제다. 필자는 흔히 이런말을 한다. 일반 공업상품을 국산화 할때 처음에는 아무리 잘 만든다해도 외제에 비하면 국산제품이 무엇인가 성능면에서 뒤떨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정부와 소비자가 꾸준히 애용하여 준다면 몇해가지 않아서 외제에 손색이 없을 뿐아니라 수출까지도 할 수 있게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국산계도 마찬가지로 이번계기에 양계인 모두가 합심해서 국산계를 애용 독려해서 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면 적어도 1976년도까지는 우수한 국산계가 우리 강산 방방 곡곡에서 좋은 능력을 나타내어 외국계에 못지않은 오히려 현재와 같은 사료사정하에서는 좀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계를 모방한 잡다한 종계가 국산종계로 둔갑하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위하여 종계등록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대한양계협회와 정부당국에 필자개인이 누차에 걸쳐 건의 한바 있다. 현재 협회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만 철저히 된다면 확실한 종계가 아니면 등록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월간 양계, 현대양계 등의 간행물에 자세한, 종계 확보 내용과 신용도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틈없

는 종계는 자연히 도태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종계도입중단에 따라 수출요구에 의하여 특정한 외국 종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수출을 조건으로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 문제는 단점이라기 보다 중단이후에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개 국내에서 육종면에 아직 시일을 요하는 계종은 육제인데 농수산부의 안을 보면 그러한 수출수요를 감안한 종계 10만수를 1974년에 한하여 도입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토록 되어 있으므로 1975년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수출을 빙자한 수입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른 공업제품처럼 보세가공하는 형식도 있으나 종계는 한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자손을 번식하기 때문에 시장유출로 인한 질서가 흐려질 우려가 있고 국내에서 육종하는 육제도 모두 근본은 미국이나 구라파 및 일본등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특정한 품종을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일곱째, 도입중단을 서서히 할것이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차차로 줄인다는 것이 끝내는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차차 줄여서 줄어드는 수입종계의 주가만 자극시켜서 특정 종계장만 이익을 보게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100% 있기 때문에 기왕 도입계를 국산계로 대체한다면 일시에 해 버리는 것이 불평이 없고 모든 양계가가 공평한 대우를 받는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입계의 수입중단이 오늘에야 이루어져 만사지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국산계개량을 하는 국가기관이나 민간종계장이 남아 있을때 중단되어 국산계대체가 다소의 무리는 있지만 가능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경하하여 맞이 않는 바이다. □□

월간 양계 정기구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 1년 분 : 2000원

■ 반년분 : 1200원

소액환을 메어서 ■ 서울 중구 양동 44-28 대한 양계협회로 보내십시오.